

목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간행관련 기록 검토

옥 영 정*

1. 서 언

목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목판본 『직지』’로 칭함)은 1378년 경기도 여주의 취암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운화상 景閑(1299-1374)이 생존하였던 1372년부터 이 책의 간행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1378년에 6월에 목판본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에 『백운화상어록』도 함께 간행되었다. 백운화상이 말년에 거처하였던 경기도 여주 취암사에서 그의 문인과 시주자들의 도움을 받아 목판본으로 간행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금속활자본 『직지』’로 칭함)은 백운화상이 입적하고 3년 후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당시 흥덕사에서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사찰에서 사사로이 주조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 금속활자본 『직지』가 먼저 간행되고 그 이듬해에 목판본 『직지』가 간행되었기 때문에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금속활자본 『직지』가 청주에서 간행된 배경에는 아직도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많다. 예컨대, 금속활자본을 간행한 바

로 다음해에 이 판본을 바탕으로 취암사에서 새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고 인식하거나 간행관련 인물의 이름을 오식하는 경우도 있다. 간행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제자 달감과 석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목판본 『직지』와 연결고리를 지닌 유일한 인물인 비구니 妙德을 제외하고는 목판본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의 간행에 관련된 여러인물(北原郡夫人 元氏, 駒城郡夫人 李氏 등)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당시에 취암사에서 간행된 서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주지역에서 이 책을 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하여 좀 더 탐구해보아야 할 내용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특히 목판본 『직지』의 간행관련기록과 형태적 특징 파악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연구과제를 제시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목판본 『직지』의 현존본

현재까지 알려진 목판본 『직지』는 3종이 전해지고 있다. 하권만 남은 금속활자본 『직지』와 달리 상·하권이 모두 남아있으며, 현 소장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영광 불갑사 등이다. 그 중에 장서각 소장본은 전래되는 목판본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옥영정,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하오개로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화: 031)709-8111, FAX: 031)709-2247, E-mail : gabinja@hanmail.net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부교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영광 불갑사 소장본은 서문이 없는 상태이다. 장서각본을 기준으로 살펴본 전체체제는 卷首에 목차없이 李穡(1328~1396)과 成士達(?~1380)의 서문이 있고 卷末에 백운화상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발문 다음에 간행년월(1378년 6월), 글씨를 쓴 사람(戈菴禪和, 天巨), 글씨를 새긴 사람(宗軌, 岳如, 信明), 募緣(法叢, 自明, 惠全), 助緣門人(妙德, 妙性, 靈照, 性空, 鈴平郡夫人 尹氏, 北原郡夫人 元氏, 駒城郡夫人 李氏, 正順大夫判通禮門事 金繼生), 판각과 목판보관장소(여주 취암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주내용은 『景德傳燈錄』, 『禪門拈頌』 등의 史傳 관계 문헌을 섭렵하여 역대의 여러 부처를 비롯한 조사와 고승들의 偈·頌·讚·銘·書·詩·法語·說法 등에서 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긴요한 것을 초록하여 편찬한 것이다. 백운화상이 이 책을 手抄하여 엮었을 때가 75세였다. 그는 54세이던 1351년 지공선사에게 7수의 계송으로 화답하고 같은 해 5월에 원나라 石屋清瑛和尚으로부터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운화상 景閑(1298~1374)은 太古普愚(1301~1382)·懶翁惠勤(1320~1376) 등과 함께 고려 말 선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나 普愚나 惠勤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다. 정확한 생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白雲和尚語錄』에 있는 李穡과 李玖의 서문에 근거하여 충렬왕 24년(1298)에 전북 고부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景閑의 초년에 대한 傳記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어려서 출가했다고만 알려졌을 뿐 출가하게 된 구체적인 시기나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출가한 이후 49세이던 충목왕 2년(1346)에는 祈雨祭를 지냈다는 기록이 『高麗史』에 전해진다.

여기에 따르면 경한 역시 당시 고려의 다른 禪僧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강남지역으로 유학을 떠

났다. 충정왕 3년(1351) 5월에 중국 霞霧山 天湖庵에서 중국 임제종의 대표적인 승려인 석옥청공과 교류하였으며, 燕京 法源寺에 있던 인도승 指空과도 교류하였다. 이듬해 정월 다시 석옥청공을 만난 뒤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蒙山德異가 생전에 있었던 休休菴에 잠시 머물렀다가 같은 해 3월 귀국했다. 귀국한 직후 太古를 만나기도 했지만 太古와는 그다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지는 않다. 공민왕 2년(1353) 佛覺禪寺에서 『證道歌』의 한 구절을 생각하다가 大悟하였다. 그 이듬해인 1354년 석옥청공의 제자 法眼禪人이 석옥의 辭世頌을 가지고 와서 경한에게 전달하였으며, 경한은 指空에게 여러 편의 계송을 보내기도 하였다. 1357년 太古의 천거로 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였고, 1365년 懶翁의 추천으로 원나라 順帝의 願刹인 海州 神光寺의 주지가 되었다. 이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1368년에는 공민왕비 魯國大長公主의 願堂으로 세워진 興聖寺의 주지를 맡았으며, 1370년 9월에는 懶翁·千熙와 함께 廣明寺에서 功夫選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1374년 여주 鷲岩寺에서 77세로 입적하였다. 그의 저술로 알려진 것으로 현존하는 것이 『白雲和尚語錄』 2권과 『직지』 2권이다. (백운화상의 생애에 대해서는 황인규(2004)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yoksa.aks.ac.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목판본 『직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卷上에는 毘婆尸佛·尸棄佛·毘舍浮佛·拘留孫佛·拘那含牟尼佛·迦葉佛·釋迦牟尼佛 등 일곱 부처와 석가모니불로부터 불법을 계승한 인도의 第1祖 마하가섭 이하 제28조 보리달마까지의 28尊이 실려 있다. 그리고 중국의 慧可·僧璨·道信·弘忍·慧能의 5조사와 그 법통을 이은 후세의 고승 대덕 중 안국대사에 이르기까지의 것이 수록되었다. 卷

下에는 아호대의화상부터 대법안선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신라大領의 것도 초략되어 있다.

현존하는 목판본 『직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장서각 소장본

전래되고 있는 3종 중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판본으로 2권 1책이고, 형태사항은 사주단변, 반곽 16.7×12.4cm로 다른 2종에 비해서 크기가 약간 작다. 이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종이의 수축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본은 동일한 것이다. 항자수는 11행 20자 또는 21자, 주쌍행, 세혹구에 상하향흑어미이며, 책의 전체 크기는 21.4×15.7cm이다. 판심제는 ‘心要’이고, 본문에는 頭註가 있는데, 이는 내용의 검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후대에 필사한 것이다. 1992년 보물 제1132호로 지정되었다.

체제는 본문 앞에 목은 이색과 성사달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백운화상의 발문이 있다. 발문

뒤에는 ‘宣光八年戊午六月日刊’이라하여 1378년 6월에 간행한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금속활자본 『직지』보다 11개월 늦은 것이다. 간기 다음에 간행관련 인물과 ‘留板川寧驚崑寺’라고 하여 간행처를 겸한 목판 소장처를 밝히고 있다. 이 장서각본은 인쇄상태가 비교적 선명하여 초기인본임을 알 수 있다.

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이 판본은 상하 2권 1책으로, 사주단변, 반곽 17.2×13.5cm, 11행 20자, 有界, 흑어미로 판식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앞의 장서각 소장본과 비교했을 때, 반곽과 전체 크기가 23.6×16.0cm로 약간 크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인쇄상태도 장서각 소장본에 비해 다소 떨어지며, 책의 상하 여백을 후대에 절단하여 원형이 상실되어 있다.

장서각 소장본과 달리 이색과 성사달의 서문이 결락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백운화상의 발문과 간기의 내용은 동일하다. 발문의 작성시기는 ‘歲在壬子年九月 成佛山居老比丘景閑白雲手書 時年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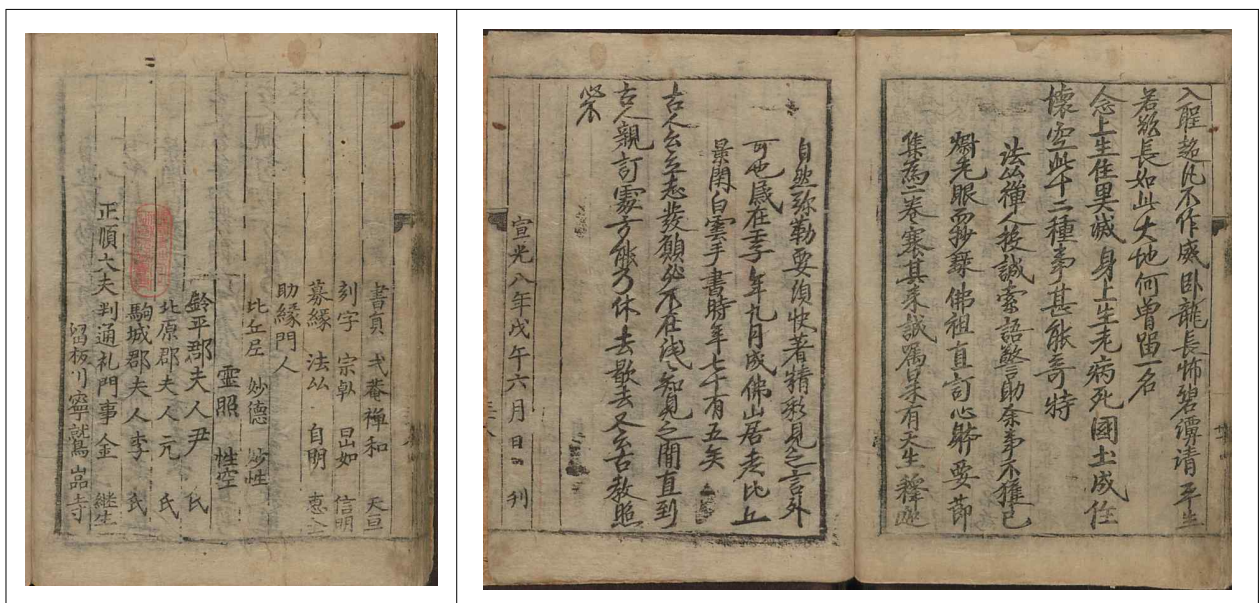


그림 1. 장서각소장 목판본 『직지』의 권말 간기



그림 2. 불갑사소장 목판본 『직지』의 첫장과 마지막장

十有五矣’를 통해서 백운화상이 75세였던 1372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6년 후인 1378년 6월에 천녕(현 여주) 취암사에서 판각되었고 이는 이곳 소장본이자, 같은 간행처인 『백운화상어록』과 간행 시기가 한 달 밖에 차이나지 않고,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 영광 불갑사 소장본

이 판본은 1998년 전남 영광 불갑사 팔상전 석가삼존상 및 16나한상에서 불복장유물로 발견되었고,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33호로 지정되었다가 이후에 보물 1470-1호로 다시 지정되었다.

표지 없이 紙捻으로 묶여진 상태로 7개의 지넘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 장황을 위한 5침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표지가 묶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본래 권수에 있는 이색과 성사달의 서문

과 권말의 백운화상의 발문이 없이 오직 본문만 남아 있다. 권수 권말이 상당 부분 충해와 누습의 피해를 입은 상태여서 상권의 전반부와 하권의 하단부에는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판식은 앞의 장서각 소장본과 동일하나, 반쪽은 17.0×13.5cm 전체 책의 크기는 25.5×15.7cm로 장서각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 비해 다소 크다. 초기인본으로 보이며, 인쇄상태가 국립중앙도서관본에 비해 양호하다.

3. 목판본 『백운화상어록』의 현존본

『백운화상어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다. 이 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목판본 『직지』가 인쇄된 지 한 달 후 동일한 간행처인 여주 취암사에서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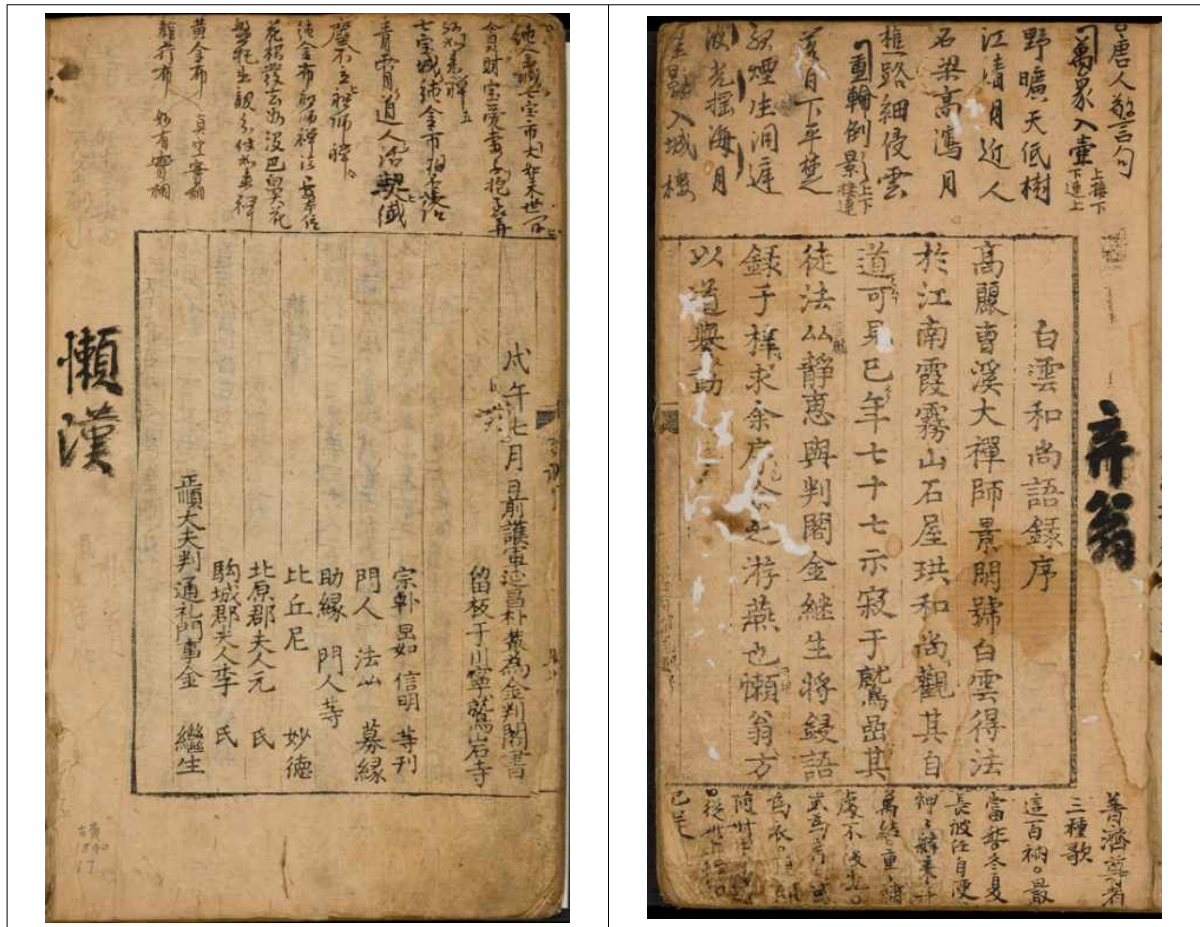


그림 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백운화상어록』의 서문과 간기

戊午七月日 前護軍延昌朴鼓爲金判閣書
 留板于川寧鷲岩寺
 宗倬 岳如 信明 等刊
 門人 法从 募緣
 助緣 門人 等
 比丘尼 妙德
 北原君夫人 元氏
 駒城君夫人 李氏
 正順大夫判通禮門 金繼生

위의 내용은 권말의 간기인데, 이를 통해 목판본 『직지』를 간행하는데 참여한 인물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목판본 『직지』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판식의 크기, 체제 등이 거의 같다.

고려 후기에는 스승이 입적한 후 제자가 스승의 어록을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도 이러한 경향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백운화상의 侍者였던 釋璨이 기록하고 제자인 法从·靜慧·宗倬·岳如·信明 등이 간행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시주자들의 도움을 받아 간행하였다.

『백운화상어록』은 경한의 선사상과 함께 출가 이후의 행적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자료이며 목판본 『직지』와 동일한 형식과 체제를 보인다. 체제는 상·하 2권 1책으로 卷上에는 이색과 李玖의 서문이 있고, 그 뒤에 '神光寺入院小說', '興聖寺入院小說', '祖師禪', '禪教通論', '雲門三句釋', '大陽三句釋', '懶翁和尚三句與三轉語釋

(3句)’, ‘三轉語(2篇)’, ‘因筆不覺葛藤如許示同菴二三兄弟’, ‘送亡僧’, ‘起函’, ‘下火’, ‘洪武庚戌九月十五日承內教功夫選取御前呈以語句’가 실려 있다. 卷下에는 ‘至正辛卯五月十七日師詣湖州霞霧山天湖庵呈以石屋和尚語句’, ‘師於癸巳正月十七日記霞霧山行示同菴二三兄弟’, ‘至正甲午六月初四日禪人法眼自江南湖州霞霧山天湖庵石屋和尚辭世陪來十四日師於海州安國寺設齋小說’의 세 편을 비롯하여 7편의 禪文이 있고, ‘己酉正月日寓孤山庵指空眞贊頌’을 비롯한 詩頌 19편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臨終偈’가 있다.

이책의 서문에는 그가 서문을 쓰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경한의 제자 法麟과 靜惠가 判閣 金繼生과 함께 와서 어록에 붙일 서문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이책은 서문에서 자신이 燕京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懶翁이 燕京의 廣濟禪寺에서 설법하여 그곳의 고려인들이 나옹을 우러르고 사모했으나 당시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경한 역시 法麟 등이 와서 일러주지 못했으면 우러러 모실 길이 없었을 것으로, 경한 같은 승려를 만나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였다.

通菴居士 李玖는 경한이 神光寺의 주지로 있을 때 공민왕의 심부름을 갔다가 경한을 만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한이 입적한 후 자신과 친분이 있던 璨英이라는 승려를 통해 어록을 보게 되었고, 이에 그의 제자 達湛과 釋璨 등이 간행한 어록의 서문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책은 현재 규장각에 목판본과 필사본이 각 1종 있으며 1934년에 영인본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먼저 목판본(古貴 1840-17)은 1378년 간행된 초간본으로, 판심은 ‘雲語’, 표지서명은 ‘白雲和尚語錄’이다. 1378년 李穡이 쓴 서문과 1377년 李玖가 쓴 서문, 1378년 鷲岩寺에서 간행할 당시의 간기를 모두 갖춘 완본이다.

다음 필사본(古貴 1840-17A)은 권말의 1378년 간기까지 모두 필사되어 있으나, 필사하게 된 경위나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필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표지서명은 ‘白雲和尚語錄’이며, 책크기는 30.5×22cm이다. 마지막 영인본은 193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영인한 것이다.

목판본의 판식은 사주단변, 반곽 17.2×12.7cm, 有界, 11행 20자, 註雙行이며, 전체 크기 28.5×18.0cm이다. 또한 피휘도 보이고 있는데, 상권 79장 앞면에 고려 2대 왕인 惠宗의 이름인 ‘武’자를 결획하여 피휘하고 있는데, 이는 상권 90장 뒷면의 연호인 ‘洪武’에서도 피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고려 말 대표적인 선승으로 활동하였으나 그 사상이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白雲景閑의 禪思想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麗末鮮初 禪思想 연구에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4. 간행관련 기록과 연구과제

4.1 간행지 및 간행처

간행지와 간행처는 천녕 취암사이다. 천녕은 현재 경기도 여주시의 옛 지명으로 원래는 고구려 述川郡(일명 省知買)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에 沂川, 또는 沂川이라 칭하였다. 고려 초에 천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종 때에는 廣州에 속하였으며 뒤에 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종 때 현감을 두었으나 예종 때 여주에 합쳐 직촌이 되었다. 기천이나 천녕은 모두 물가에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곳이 남한강의 지류인 大矯川邊에 발달한 취락이기 때문이다. 동북쪽으로는 砥平, 서남쪽은 이천, 동남쪽으로는

여흥, 서북쪽으로는 광주와 이어져 있다.

『여주읍지』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는 이 부근에 楊花驛과 利川倉이 있다고 되어 있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모아 서울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梨浦津이 있었고 沂川書院이 선조 때 세워져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취암사는 현재까지도 그 위치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이다. 『동국여지승람』에 혜목산에 있다는 것이 기록의 전부인데 최근에 경기도 양평 석불역 건너편 월산리에서는 1960년대 후반 청동으로 된 북, 종, 가위, 그릇 등이 나왔으며 고려시대에 '취암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의 사찰로, 신록사, 고달사, 용문사 등이 있었다. 취암사지를 발굴하고 이를 하루빨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간행관련 인물

간기 다음에 있는 간행 관련 인명은 간행의 역할표시와 함께 책의 간행배경과 관련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妙德은 금속활자본 『직지』 뿐만 아니라 목판본 『직지』에서도 보이고 있어 직지연구의 초창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권말의 간행관련기록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宣光八年戊午六月日
 書員 弑菴禪和 天巨
 刻手 宗軌 崑如 信明
 募緣 法从 自明 惠全
 助緣門人
 比丘尼 妙德 妙性
 靈照 性空
 鈴平郡夫人尹氏
 北原郡夫人元氏
 駒城郡夫人李氏
 正順大夫判通禮門事金繼生
 留板川寧鷺崑寺

書員 천구는 1385년(우왕 11년)에 세워진 太古寺圓證國師塔碑에 음기에 107인의 禪師에 포함된 인물이다. 太古寺圓證國師塔碑는 고려 말의 고승 圓證國師 太古普愚(1301-1382)의 비로 이색이 짓고 權鑄가 해서로 써서 세운 것이다. 보우와 백운 화상의 관계, 생존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天巨외에 弑菴, 禪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들이 동일인물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弑菴 禪和에 대한 기록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목판본 『직지』의 판본에 드러나는 서체가 최소한 2인이상의 글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행관련 인물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시주자 묘덕이다. 비구니 묘덕은 금속활자본 『직지』, 목판본 『직지』와 더불어 『백운화상어록』의 간행에도 조련하였다. 금석자료로서 지공화상 부도비, 여주 신록사 나옹화상의 普濟舍利石鐘記의 건립에 시주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여겨진다. 普濟舍利石鐘記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신록사에 있는 고려 말의 고승 선각왕사 혜근(先覺王師 惠勤(1320-1376)의 비이다. 이색이 짓고 韓脩가 써서 왕사가 입적한 3년 후인 우왕 5년(1379)에 세웠다. 특히 이 비에는 北原郡夫人 元氏의 이름도 시주자로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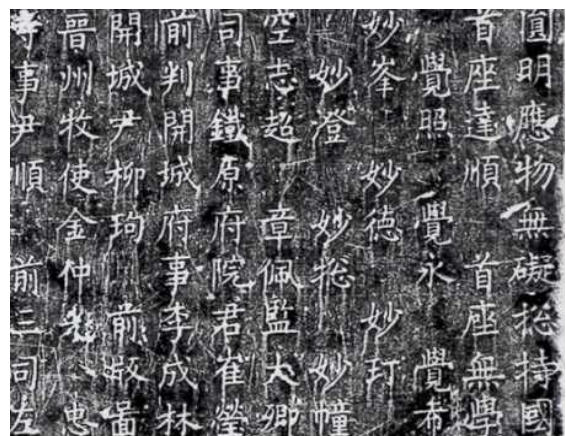


그림 4. 驪興郡 神勒寺 普濟舍利石鐘記의 묘덕

목판본 『직지』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추가할 수 있는 기록을 언급해본다면 神勒寺大藏閣記碑를 들 수 있다. 이 비는 여주군 신록사에 있는 大藏閣 창건과 운영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비로 李崇仁이 짓고 權鑄가 써서 우왕 9년(1383)에 세운 것인데 경함을 제작한 사람으로 性空을 기록하고 있다. 또 시주자 중에는 鈴平郡夫人 尹氏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正順大夫判通禮門事 金繼生은 목판본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의 간행을 주도한 인물이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앞서 普濟舍利石鐘記에서도 언급한 나옹화상의 檜巖寺址禪覺王師碑의 음기에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비는 양주군 회암사터에 나옹화상(先覺王師 惠勤(1320-1376)의 비로 이색이 짓고 權仲和가 써서 왕사가 입적한 이듬해인 우왕 3년(1377)에 세운 비이다.



그림 5. 神勒寺大藏閣記碑의 性空

5. 결 언

이제까지 목판본 『직지』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은 금속활자본을 간행한 바로 다음 해에 간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간행의 이유로서 인출부수의 제한으로 인한 금속활자인쇄의 보완 역할, 금속활자본 소실에 의한 새로운 복간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간행배경을 다시 정리한 연구(황정하, 2000)에서는 흥덕사와 취암사에서 별도의 서책 간행을 진행하였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간행할 때 목판본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목판본 『직지』를 참고한 금속활자본 『직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흥덕사와 취암사에서 별도의 서책 간행을 진행한 것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목판본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의 간행은 당시 여주지역 인쇄문화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판본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동일한 방식에 의한 간행이었고, 목판본 『직지』를 간행하는 시점에 여주 지역의 상황은 서적 간행과 관련하여 인근 용문사의 대장전 건축, 신록사의 대장경 인성보관 등 매우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운화상 관련 저술의 간행은 단순히 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여주 취암사에서 새로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 아니라 목판본 간행을 기본으로 하고 동시에 별도의 진행으로 금속활자의 간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당시 불교사적 흐름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특히 목판본 『직지』의 간행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불교사적 관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도 있겠다. 아울러 목판본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의 이색 서문은 본문의 인쇄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간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성수·남권희·이승철·임인호, 「프랑스 국

립도서관 소장 「直指」原本 조사 연구」, 『서지학 연구』 제35집, 2006. 12.

[2] 남권희, 이승철, 『직지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

[3] 남권희, 필사본 직지심체요절 2종에 관한 고찰, 『고인쇄문화』 5(1998).

[4] 남권희, 「홍덕사자로 찍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복각본에 관한 고찰」, 『문헌정보학보』, 제4집, 1990.

[5] 박문열·오국진,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上卷 復元研究 結果報告書」, 청주: 청주시, 2001.

[6] 천혜봉,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解說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7] 청주고인쇄박물관 편, 「直指와 金屬活字의 발자취」,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8] 황인규, 「백운경한과 고려말 선종계」, 『한국선학』 제9호(2004).

[9] 황정하, 「백운직지심체의 간행배경」, 『고인쇄문화』 7(2000).

[10] 문화재청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1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목 영 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
- 고문헌관리학 전공
- 경북대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석사,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다. 한국고인쇄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복원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